

광주 U대회 성공 개최 '메르스 차단'에 달렸는데...

발열감지기 설치 규모 싸고 고민 깊어진 광주시·조직위

렌트·운영비용 마련 난감

▶관련기사 2·3·6·8·12·21면
'메르스 청정지역' 유지가 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의 필수 요건으로 떠오르면서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원회가 메르스 방역의 첨병인 발열감지기 배치규모를 놓고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메르스의 원천봉쇄를 위해서는 160여 곳에 이르는 대회시설물 입구마다 발열감지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최대 1000명에 육박하는 운영인원과 막대한 예산투입이 부담이다.

안전대회가 첫 목표인 U대회 조직위는 136대(선수촌 23대 제외)를, 예산과 인력을 걱정해야 하는 광주시는 34대만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끝에 일단 메르스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16일 광주시와 광주 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광주 U대회 경기장 등 시설물은 37곳으로 모든 출입구에 발열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136대가 필요하다는 게 조직위 주장이다. 여기에 대회 선수촌도 애초 11대에서 23대로 늘리기로 해 총 159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열감지기의 구입가격은 1대당 최소 1500만원~9000만원까지 다양하지만, 광주 U대회처럼 2주일 안팎의 단일행사는 대당 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렌트하는 게 일반적이다.

조직위도 광주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선수촌 물량 23대를 제외하고, 136대를 렌트하기로 하고 비용만 6억8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발열감지기 1대당 1일 최대 6명(2인 1조 3교대)의 운영요원이 배치돼야 하는 만큼 800여명의 관리인원도 필요하다. 이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6월 8일(월)~19일(금)
문의: (062) 605-1115



발열 체크 16일 오후 광산보건소 직원이 광주 송정역에 설치된 발열감지기로 역사에 출입하는 이용객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들에게는 소정의 교육과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며, 렌트비를 포함한 총 비용은 8억~9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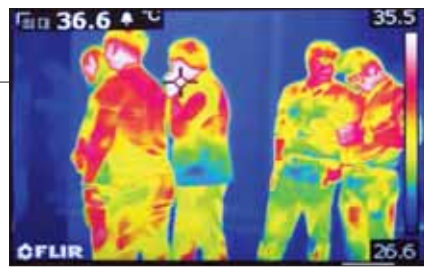
U대회 조직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도 U대회 조직위측에서 제시한 발열감지기 규모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34대 정도만 설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결국 광주시와 대회 조직위는 지난 15일 관련 회의를 갖고 발열감지기 설치규모 등을 논의했으며, 이번 주까지 메르스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측은 이날 시설물의 출입구를 40여곳으로 단일화하고, 40~45대(선수촌 제외)의 발열감지기만 설치하는 내용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출입구 단일화가 메르스 사태가 특이나 흥행저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칫 관람객과 전 세계 선수단의 불편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그렇다고 오는 26일 선수촌 오픈을 앞두고 발열감지기 설치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발열감지기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비접촉으로 실시간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 색상과 알람 등 삼중 시스템으로 발열자의 상태를 알려준다.

이번 대회 기간 발열감지기를 통해 발열자로 분류되면 일단 경기장 앞에 마련된 임시 공간으로 옮겨 매뉴얼에 따라 체온체크를 하게 된다. 37.5도 미만은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고, 37.5~38도는 1시간 후 체온을 측정해 열이 떨어지지 않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거나 38도 이상 고열 증상을 보인 자는 곧바로 국가 지정 임원 치료병원으로 이송·격리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열 감지기 설치와 관련 '최소배치, 최대효과'의 규모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문화전당 조직·인력 대폭 축소될 듯

김종덕 문화부장관
"행자부서 주는 대로 받겠다"
민주평화교류원 내년 개원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을 운영할 정부 조직이 예상과 달리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문화전당 조직 문제와 관련, "행자부와 우리(가 생각하는) 인원 차이가 40명이나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물론 (행자부와) 조율을 하겠지만 행자부에서(인원)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는 문화부가 애초 용역 결과로 제시된 문화전당 운영인력(423명)의 4분의 1을 행자부에 요구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사실상 정부의 공무원 정원 축소·동결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의중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장관은 문화전당 개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100% 완벽한 개관이 어렵다"며 "지금 이대로 준비하더라도 11월에 80% 정도나 개관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했다. 또 "5·18기념관(민주평화교류원)도 내년이나 완벽하게 개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내년 5월에 완벽하게 개관하는 게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공연장 개관에 대해 "공연장은 대관 일정이 있어 9월 이전에 개관하며 일부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때도 공연이나 이벤트가 진행될 것"이라며 "전시관 부분은 대해서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서둘러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김 장관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화전당장(정부 운영조직)과 아시아문화원장(재단법인) 인선에 대해서는 각각 공모 절차를 밟되, 문화전당장의 경우 민간으로 할지 공무원으로 할지 여부는 행자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오는 7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 "메르스 때문에 개·폐막식에서 조차 빈 좌석이 많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광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메르스 확진 보성 60代 상태 '양호'

전남도 "검사 음성 나오면 퇴원"

전남지역 최초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 지정 격리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A씨(보성)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A씨의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며 "오늘 중 검체를 채취, 1차 검사해 음성이 나오면 48시간 내에 2차 검사를 하고 다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의료진이 완치 판정을 내려 퇴원하게 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전남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해 자택격리된 사람이 170여명에 달하는 보성군에 인근 지역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1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6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확진 환자 A(64)씨와 접촉해 현재 보성에서 자택 격리 중인 사람이 173명에 달하고 있어 인근 5개 군 보건소 간호 인력 10명을 16일 중으로 보성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성군 보건소 간호사 38명으로,

광주·전남 메르스 현황	
(16일 20시 현재)	
확진 환자	1명 (보성 60대)
광주	관리 대상자 95명
전남	관리 대상자 604명
전국	감염 154명·사망자 19명
	격리 5586명·퇴원 17명

이들이 173명을 전남에 점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남도는 보성군의 자택격리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인근 지역 보건소 간호사들을 추가 파견할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민간역학조사관 4명을 이날 중 보성군에 파견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전남의 메르스 관리대상자 수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확진 환자 1명을 포함 700명으로 집계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캠스필드의 '파울플레이' ▶6면
컬처&피플 정민 교수 ▶17면

양궁 최미선
희망을 쓴다

D-16
광주 U대회
UNIVERSIADE GWANGJU 2015

UNIVERSIADE GWANGJU 2015

2015, 광주

170여개국 세계 대학생 올림픽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Global Premium Partner: SK C&C, SK Telecom, KIA, 아시안항공, SAMSUNG, Official Partner: BLACKYAK, 롯데정신요리, 광주은행, Official Sponsor: HYUNDAI, GOLF, PLAZA, 롯데, 세븐일

기간 및 장소: 2015. 7. 3 ~ 14(12일간), 광주 및 인근 시군 경기장
종목 및 규모: 21개(정식13개/선택8개), 170여개국 2만여명

정식종목: 기게체조, 농구, 다이빙, 리듬체조, 배구, 수구, 수영, 유도, 육상, 축구, 탁구, 테니스, 펜싱
선택종목: 골프, 배드민턴, 사격, 이구, 양궁, 조정, 태권도, 핸드볼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홍보대사 수지